

# 전북 홍정호, 24년만에 '수비수 MVP'

2021 K리그1 대상 시상식서 제주 공격수 주민규 제치고 '최고의 별' 우뚝



전북 수비수 홍정호가 올 한 해 K리그를 가장 밝게 빛낸 별로 선정됐다. 7일 서울 흥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대상 시상식'에서 MVP를 거머쥔 홍정호.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수상 소감을 밝히는 홍정호. 주원희 기자 telh1147@donga.com

전북 주장 완장차고 통산 9번째 K리그1 우승 이끌어 수비 전 부문서 두각...베스트11 수비수 부문 선정도 울산 수비 설영우 영플레이어상·전북 김상식 감독상



전북 현대의 주장 완장을 차고 팀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른 홍정호(32)가 K리그1(1부) 최고의 별로 떠올랐다.

홍정호는 7일 서울 흥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K리그1 12개 팀 감독과 주장으로부터 6표씩 받은 그는 미디어 56표를 더한 합산점수 48.98점으로 득점왕 주민규(제주 유나이티드·39.45점)를 따돌렸다.

K리그에서 수비수의 MVP 수상은 김주성(1997년) 이후 24년만이다. 또 중앙수비수의 MVP 선정도 박성화(1983년), 한문배(1985년), 정용환(1991년), 홍명보(1992년), 김주성(1997년) 이후 역대 6번째다.

트로피와 상금 1000만 원을 챙긴 홍정호는 "4년 전 해외생활(중국 장수 쉐닝)을 마치고 돌아오려 했을 때 찾은 팀이 많지 않았다. 전북만 손을 내밀어줬다. 보답하고 싶고, 잘하고 싶었다. 많은 경기를 뛰면서 항상 배우고 자신감을 얻었다. 최고의 팀과 동료들 만나 최고 선수가 됐다. 전북에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의 수상은 우승팀 프리미엄으로만 볼 수 없다. 전북이 22승10무6패, 승점 76으로 2위 울산 현대(승점 74)를 제치고 5년 연속 정상에 오른 가운데, 수비 부문의 거의 모든 지

표가 홍정호의 수상 자격을 입증한다. 수비지역 인터셉트 50회(2위), 볼 획득 186회(4위)를 기록했다. 또 클리어 85회(9위), 차단 100회(1위)를 찍었다.

매 순간 눈부셨으나 하이라이트는 0-0 무승부로 끝난 9월 10일 울산 원정이었다. 당시 텅 빈 골문으로 향한 울산 이동준의 헤더 볼을 홍정호가 끝까지 달려가 건어내 실점을 막은 장면은 백미 중의 백미였다. 그 역시 이를 '인생수비'로 표현했다.

홍정호는 공격에서도 알트란같은 역할을 했다. 리그 36경기에서 2골·1도움, 고비마다 한 방씩 꽂았다. 9월 5일 FC서울과 원정경기(4-3 승)에선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을 작렬했고, 11월 28일 37라운드 대구FC와 원정경기(2-0 승)에선 후반 선제 결승골을 뽑았다.

영광은 또 있었다. 베스트11 수비수(DF) 부문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울산 불투이스(네덜란드)와 최고의 중앙수비 콤비가 됐다. 118표 중 109표를 얻었다. 제주 시절인 2010년 처음 베스트11에 오른 그는 올해로 4번째 베스트11을 수상했다.

한편 K리그1 영플레이어상(상금 500만 원)은 울산 측면수비수 설영우(23)가 수상했고, 감독상은 사령탑 데뷔 첫 시즌에 우승트로피를 거머쥔 김상식 전북 감독이 받았다. K리그에서 선수-코치-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경험한 것은 조광래 대구 사장, 최용수 강원FC 감독에 이어 3번째다. ▶관련기사 2면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장타여왕' 톰슨, 10일 성대결 펼친다 ▶8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1승의 주인공 렉시 톰슨(미국)이 10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이벤트 대회 QBE 숏아웃에 출전해 내로라하는 남자 선수들과 '성 대결'을 펼친다. LPGA 투어 '대표 장타자'인 톰슨이 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올해로 5번째. 두 선수가 한 팀을 이뤄 3라운드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서 톰슨은 버바 왓슨(미국)과 짝을 이뤄 우승 상금 89만5000달러(10억5000만원)에 도전한다. AP뉴시스

## 세계적인 신드롬 '오징어게임', TV의 오스카 '에미상' 받을까

美 비평가협 크리스틱 초이스 어워즈 3개 부문 후보 '더 크라운' 등 최근 수상작들, 에미상 주요부문 석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과 주연 이정재가 미국 비평가들이 주는 상의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에 내년도 에미상 후보 지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방송영화비평가협회(BFCA)가 크리스틱 초이스 어워즈 후보를 발표하며 '오징어게임'의 이정재를 드라마 시리즈 남우주연상 명단에 올렸다. 그

는 '디스 이즈 어스'의 스타링 K. 브라운, '이블'의 마이크 콜터, '석세스'의 브라이언 콕스 등과 경연한다. 수상 여부는 내년 1월10일 시상식에서 가려진다. '오징어게임'도 한국드라마로는 처음으로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과 외국어 드라마상을 노린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 독립영화상인 고섬 어워즈의 드라마 장편 시리즈 작품상 수상에 이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크리스틱 초이스 어워즈는 1995년 설립된 BFCA가 제정한 상으로, 영화와 TV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2020년 '기생충'이 외국어영화상을, 연출자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받아

낮았다. 에미상 수상작(자)을 점칠 수 있는 창으로도 평가된다. 실제로 지난해 넷플릭스의 '더 크라운', 2020년 '석세스' 등이 크리스틱 초이스 어워즈에 이어 에미상을 받았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는 '프라임타임 에미상', '국제에미상', '데이타임 에미상' 등 시상식을 각기 다른 시기에 연다. 2010년 MBC '휴먼다큐 사랑'의 '풀뽕엄마' 편이 '다큐멘터리 에미상'을 받았고, 그동안 넷플릭스의 '킹덤', KBS 2TV '달이 뜨는 강',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이 미국 외 나라 작품에 주는 '국제에미상' 후보에 올랐다. 연기자로는 장혁이 2011년 KBS 2TV '추노'로 '국제에미상' 남우주연상 후보가 되기도 했다.

흔히 말하는 에미상은 '프라임타임 에미상'으로, 매년 9월 시상식에 앞서 7월 후보를 발표한다. 'TV 부문의 오스

카'로 불리는 만큼 '오징어게임'과 출연자들이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의미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버라이어티지는 드라마가 "미국 전역에 공개돼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 자격을 갖췄다"고 보도했다. '국제에미상'도 가능하지만 '프라임타임 에미상' 등 두 시상식에 동시 출품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7일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올해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 등 7관왕에 오른 '더 크라운'을 비롯해 애플TV+(플러스)의 '테드 래소', HBO맥스의 '메어 오브 이스트타운' 등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주요 부문상을 석권한 것도 '오징어게임'에게는 에미상 후보 지명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ON AIR

# 쇼핑 LIVE 1879

NAVER '1879쇼핑' 검색